

## 98세대와 지식인 운동

최 낙 원 (전북대, 서문학)

### 序 言

1898년은 스페인 국민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해였다. 1492년이 궁정적 의미에서 잊을 수 없는 해였다면 1898년은 부정적 의미에서 잊을 수 없는 해였던 것이다. 1492년부터 비롯된 대스페인제국이 1898년에 와서는 한낱 유럽의 소국으로 전락해 버렸다. 1898년 12월 10일에 체결된 빠리조약은 이러한 스페인의 위치를 극명히 보여주는, 스페인 국민들에게는 진정 가슴아픈 조약이었다.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스페인은 막아왔던 쿠바의 독립을 허용해야 했으며 푸에르토리코와 필리핀을 승전국인 미국에 넘겨주어야 했다. 이제 스페인은 다른 유럽국가들이 제국주의의 깃발을 앞세우고 한창 국력을 확장시키고 있을 때에 모든 식민지를 상실해 버렸다. 스페인은 유럽의 한 조그마한 모퉁이를 점유하고 있을 뿐인 소국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앞에서 스페인 국민들은 어떠한 국민적인 반응도 보여주지 않았다. 땅을 치며 통곡할 힘도 없었던 것이다. 전국민이 문자 그대로 모든 움직임을 멈춘 듯했다. 무기력감이 온 국토를 휩쓸었다. 반응이 없는 국민들의 무기력감, 바로 이것이 전쟁의 패배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감, 무기력감 속에서도 나락의 구렁텅이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던 한 그룹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스페인 지식인 그룹이었다. 진정 스페인은 이제 회복할 가망성이 없는 나라인가? 이같은 절망감은 곧 정신적 위기감으로 연결되었고 이러한 위기감은 스페인 지식인들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쓰러져가는 조국을 구할 사회계층이 이 지식인 그룹 외에는 없었다. 제도권 정치인들은 무기력의 표상이었고 일반 기층민중들은 힘이 없었다. 자연 구국의 사명이 이 지식인들에게 요구되었다.

그러면 이 지식인들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인가? 이만 폭스E. Inman Fox는 그의 글 “El año de 1898 y el origen de los intelectuales”<sup>1)</sup>에서 그

1) *La crisis intelectual del 98*, Cuadernos para el Diálogo, Madrid, 1976.

들을 ‘제도권 정치, 사회질서에 반대하는 사상가 혹은 문필가계급’에 속하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여론을 형성하고 이끄는 문필가, 사상가, 언론인들로서 항의적 성격이 그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무기인 신문, 잡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그리고 강의, 강연 등을 통해 무기력한 제도권 정치가들에게 항의하였으며 그들의 조국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정치·사회제도 전반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리고 왕정복고시대의 부르조아지적 분위기를 비판하였고 과두체제, 호족정치, 행정의 비효율성, 카톨릭교회의 완고한 교조주의자들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과 항의 그리고 기존체제에 대한 거부의 물질은 이 그룹의 전반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스페인국민들에게 조국의 실상을 알려주려고 애썼으며 그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문제의 핵심과 이에 대한 처방을 제시해 주었다.

이러한 지식인그룹중의 일단의 사람들이 선술한 ‘1898년의 재앙(Desastre de 1898)’의 이름을 따서 98세대(Generación de 1898)라고 불리워진다. 이들은 본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는데, 본고는 ‘은시대(Edad de Plata)’의 주역으로서 스페인 문학사에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98세대 지식인들의 성격 및 형성과정 등을 유럽적 맥락에서 연구하고, 또 이들이 당시 극심한 정신적 좌절감 속에 빠져있던 스페인 국민들에게 제시한 국력회복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국력회복방안의 실천에 따른 그들의 활동과 변천과정 및 한계, 나아가서 이 그룹이 갖고 있는 현대적 성격 등을 조사하여 역사적으로 19세기와 20세기의 분기점에 서 있던 이 그룹이 스페인 현대화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이 그룹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I. 98세대의 형성

1898년의 역사적 재앙을 계기로 그동안 호도되어 왔던 스페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진정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왔는가? 도대체 우리의 진정한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우리의 실상은 무엇인가? 물론 이러한 자성의 소리는 이전부터 있어왔지만<sup>2)</sup> 1898년의

2) 이러한 스페인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최초로 실증주의적 접근을 꾀하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던 지식인들의 그룹이 바로, *institucionistas*, *regeneracionistas*들이었다. *institucionistas*들은 독일 철학자 크라우제(Krause) 주장을 스페인에 이식시켜 스페인적인 것으로 체계화시킨 훌리안 산스 텔 리오의

참담한 재앙을 경험하자 더욱 구체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당시 스페인이 안고 있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빼드로 라인 엔뜨랄고 Pedro Laín Entralgo는 그의 저서, 「*La Generación del Noventa y ocho*」<sup>3)</sup>에서 당시의 문제점들을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지적 독단주의, 둘째, 종교재판식 사고, 셋째, 종교의 화석화, 넷째, 국수주의적 애국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국주의적 사고방식 등이 그가 지적한 문제점들이었다. 한편, 「*La Generación del 98*」를 쓴 도널드 쇼 Donald Shaw는 그의 저서<sup>4)</sup>에서 앙헬 가니벳 Angel Ganivet의 주장<sup>5)</sup>을 인용하면서 스페인 문제의 근본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위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스페인 국민은 그들을 이끌어주는 지도적 이념을 갖고 있지 못했으며 이의 부재로 말미암아 궁정적인 국민의 정신적인 총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문제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상적 지주의 부재에서 파생되는 가치관의 혼란이 결국은 스페인 국민들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정치인들의 비도덕성, 식자충의 경박성 내지는 변덕스러움이 두드러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이념의 부재시에는 규범체계가 흐트러지기 마련이며, 규범체계의 혼란은 결국 신념의 상실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이러한 신념의 상실은 스페인 국민의 공동체의식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앞서 언급한 정신적, 물질적 해체 현상이 사회 각분야, 각계층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스페인이 앓고 있던 중병의 원인이었다.

이러한 사회해체의 위기속에서 등장한 98세대는 어쩌면 위기상황에 처한 시대가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역사적 산물이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당시의

---

크라우시스모(Krausismo)를 그들의 사상적 체계속으로 흡수시킨 자들로서 주로 합리주의적, 실증주의적 교육을 통해 스페인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들은 자유교육원(*Institución Libre de Enseñanza*)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스페인의 지적 엘리트들을 길러내고자 많은 애를 썼다. 이 교육기관의 창설자인 프란시스코 허네르 데 로스 리오스는 1880년 전술한 교육기관을 개설하면서 행한 연설에서 당시 스페인의 문제점을 '물질적, 정신적 해체 현상'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조국의 위기를 구할 사명이 바로 자유교육원의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있다고 간파하였다. 이어 이러한 *Institutionismo*를 이어받은 *regeneracionistas*들도 당시 스페인의 문제점을 실증주의적 방법으로 분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그룹의 대표적 인물이 호아킨 코스타이며 이들이 주장한 *regeneracionismo*는 비록 부분적이나마 98세대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3) Colección Austral, Novena Edición, Madrid, Espasa-Calpe, 1979, Pág.106.

4) Madrid, Cátedra, 1989, pág.23

5) Angel Ganivet, *Obras Completas, II*, Madrid, 1943, pág.594, citado por Donald Shaw, *Op.Cit.*, pág.23.

스페인의 위기가 정신적 황폐화에 기인하였다면 98세대의 대처방식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였다. 1989년의 재앙은 98세대 지식인들에게 당시 스페인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짓된 삶의 모습을 인식케 해주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절박한 스페인 사회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이다.

1898년 사건의 여파 속에서 일단의 문학인들, 예술인들, 기자들, 학생들이 마드리드의 몇몇 카페들 예를 들어, 초창기에는 까페 데 마드리드(Café de Madrid), 그후에는 까페 데 레반떼(Café de Levante), 그리고 까페 데 라 까레라 데 산 헤로니모(Café de la Carrera de San Jerónimo), 까페 잉글레스(Café Inglés) 등에 거의 정기적으로 모여 정치, 문학, 예술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었다. 당시 이들의 모습을 리카르도 바로하 Ricardo Baroja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우리들 모임의 중추신경을 구성하고 있던 것은 우리들 각자가 표출하고 있는 거의 야성적이라 할 만큼의 독립적인 판단력이었다. 따라서 토론은 끝이 없었고 가끔은 몇 날 며칠씩 계속되는 경우도 있었다.<sup>6)</sup>

이들은 이곳에서 비록 의견은 달리했지만 ‘98년 재앙’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던 지식인 그룹중에서 특히 98세대라고 불리운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길래 이러한 명칭을 붙일 수 있는가?

최초로 특정그룹의 지식인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98세대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은 아소린(Azorín)<sup>7)</sup>이었다. 그는 처음에 스페인의 일간지인 아베세 ABC紙에 기고했다가 1913년, “La Generación del 98”란 제목으로 <<꼬라시 꼬스 모데르노스 Clásicos Modernos>>에 발표한 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지식인 그룹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라미로 데 마에스뚜는 1902년에 발표한 그의 글 “Una Generación”에서 1898년을 기준점으로 두 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8)</sup> 다시 말해서 앞서 말한 1898년 이후의 새로운 그룹을 지칭할 때 ‘세대

6) Ricardo Baroja, “Valle-Inclán en el Café”, *la Pluma*, año 4, núm.32, págs.56, Madrid, 1923, citado por Hans Jeschke, *La Generación de 1898*, Madrid, Editorial Nacional, 1954, págs.76.

7) 아소린은 필명이고 본명은 호세 마르티네스 구이스(José Martínez Ruiz)이다. 98 세대의 핵심 구성원으로 1873년 알리칸떼의 모노바르에서 태어나 1867년 마드리드에서 생을 마감했다.

(Generación)'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 이후인 1908년 2월 <<파로(Faro)>>에 발표한 글에서 가브리엘 마우라는 이러한 세대를 '재난의 세대(Generación del Desastre)'로 명명하였다.<sup>9)</sup> 이러한 용어들이 비록 아소린이 사용한 용어의 개념에 근접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98세대란 명칭으로서 이 그룹을 처음으로 지칭한 사람은 역시 아소린이었다. 그는 이 글에서 이 그룹의 첫번째 특징으로서 항의적 성격을 들었다. 즉, 스페인의 잘못된 정치행태에 대한 항의, 기성세대에 대한 항의, 그리고 스페인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경박한 풍토에 대한 항의를 이 그룹이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그룹의 사람들은 스페인 민중의 보편적 감성을 에체가라이 Echegaray의 극이 갖고 있는 공격적 성향, 짬뽀아모르 Campoamor의 회의적 분위기, 그리고 갈도스 Galdós 소설의 사실주의적 비전에서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그룹의 구성원들(바예-인끌란, 우나무노, 베나벤헤, 바로하, 마누엘 부에노, 마에스뚜, 루벤 다리오)의 의식구조는 그라씨안, 까달소 Cadalso, 호베야노스 Jovellanos, 라라 Larra 등의 작가들이 갖고 있는 사회비판적 분위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 분위기는 1898년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한껏 고조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98세대의 비판적, 항의적, 반항적 성격 외에도 이 세대가 갖는 특징으로서 그는 유럽 여타 나라의 작가나 사상가, 즉 니체, 베를렌, 고띠에르 등의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아소린이 주장하는 이 그룹이 갖는 다른 특징들로서는 스페인 중세문학의 재조명 특히 베르세오 Berceo, 환루이스 Juan Ruiz, 산띠아나 Santillana 등의 중세시인들 작품의 부활, 그레고 풍의 선호, 공고라 Góngora 작품의 재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라의 시에 대한 열정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아소린이 주장한 98세대 지식인그룹의 성격은 그후, 여러 문학연구가들<sup>10)</sup>이 설정한 성격과는 여러 차이가 있지만<sup>11)</sup> 어쨌든 98세대의 구성원으로서 그가 본 98세대의 모습은 이 그룹이 갖는 전반적 특성을

8) *La Publicidad*, 5 de noviembre de 1902, citado por Inman Fox, "La Generación de 1898 como concepto historiográfico", *Divergencias y Unidad: Perspectivas sobre la Generación del 98 y Antonio Machado*, Madrid, DiscursOrígenes, 1990, pág.23.

9) *Ibid.*, pág.24.

10) 예를 들어 Pedro Salinas, Hans Jeschke, Pedro Laín Entralgo, Luis Granjel, Ricardo Gullón, José Carlos Mainer 등이 98세대에 대한 주요 연구자들이다.

11) Azorín이 98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루벤 다리오, 베나벤헤를 언급한 것을 볼 때, 그리고 이들 작가의 특성을 '항의적 성격'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또한 고띠에르와 베를렌느의 영향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모데르니스모와 98세대를 혼동하고 있는 듯하다.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아소린의 글이 나가자 아소린 이 98세대의 구성원으로 지명한 몇몇 사람들(마에스뚜, 우나무노, 빠오 바로하)은 아소린의 주장에 회의를 표시했다.<sup>12)</sup>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페드로 살리나스 Pedro Salinas가 193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마드리드대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인 “El concepto de generación literaria aplicado a la del 98”<sup>13)</sup>은 98세대가 ‘세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페드로 살리나스는 이 글에서 문학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줄리어스 페터슨 Julius Petersen의 「Las generaciones literarias 1930」과 핀데르 W.Pinder의 「El problema del concepto de la generación en la historia del arte europeo 1926」에서 제기된 이른바 1920년대의 독일의 ‘문학과학’(Ciencia de la Literatura)의 범주안에 든 ‘세대’라는 개념설정 조건에 아소린이 선견지명적으로 지적한 98세대 구성원들의 공통점들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몇가지 점들을 수정한다면, 이 그룹에 세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독일의 비평가인 페터슨은 어떤 그룹이 ‘문학세대’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출생시기가 비슷할 것 2)비슷한 지적교육 3)친분관계 4)그 그룹만의 고유한 집단행동에의 참여 5)그들의 행동내지 사고를 결집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의 존재 6)길잡이 또는 지도자의 존재여부 7)그들을 구분시키는 공통된 문체의 존재 8)전세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특징적 성격 등이 페터슨이 주장하는 조건들이었다. 이러한 조건에 비추

12) 이들은 98세대의 특징으로서 아소린이 지적한 개혁적 성격, 문학적 관심이 두가지 것 중에서 오직 개혁적 성격만이 이 그룹의 성격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그룹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세대’보다는 ‘그룹’이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그룹에 소속되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이었다. 마에스뚜는 이 그룹을 ‘비판을 거부하는 국가적 자존심’에 반기를 든 지식인그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시 스페인의 문제점은 ‘문제제기를 싫어하는 그것’에 있다고 말한다.(‘El alma de 1898’, ‘La obra de 1898’, Nuevo Mundo, III-1913) 우나무노도 1916년 1월 31일 *El Imparcial*에 발표한 ‘Nuestra egolatría de los del 1898’이란 글에서 이 그룹은 조국의 땅에 떨어진 도덕의식을 고발한 그룹이며 불쌍하고 비참한 정치 전반에 대한 항의의 외침을 퍼부은 그룹이다라고 말했다. 바로하는 처음에는 이러한 세대의 존재자체를 부인했으나 곧 이를 수정했다. 그러나 호칭에 있어서는 아소린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 그룹의 구성원들이 태어난 시점을 따서 1980년 세대’로 부를 것을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어떠했던간에 이들이 아소린의 정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은 그들의 독특하고도 독립적인 개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적 발로로서 해석해야한다는 설이 우세하다.(Hans Jeschke, op.cit, pág.82)

13) 이 강의내용은 훗날 1948년에 Alianza Editorial에 의해 출판된 *Literatura Española siglo XX*에 수록되었다.

어 살리나스는 우나무노, 베나벤페, 바로하, 아소린, 마에스뚜 그리고 바예-인끌란 등이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으며(출생년대가 주로 1870년대) 독학이라는 비슷한 지적교육 그리고 친분관계에 있어서도 바로하, 아소린, 마에스뚜는 한 때는 로스 뜨레스(Los Tres)란 필명으로 활동할만큼 친분이 돈독한 사이였으며 일찍부터 우나무노, 바예-인끌란 등과 교분을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동일한 독서회에 참석하였고 동일한 잡지들(*Juventud, Alma Española, Helios, etc.*)에 필자 혹은 편집자들로 참여하였다. 또 이들이 공개적인 행사에 어느 정도 공동보조를 취한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라라의 무덤에 공동으로 참배했다든지, 바로하의 저서 *Camino de perfección*의 출판기념파티에의 참여, 그리고 에체가라이의 노벨상 수상에 대한 항의 등등이 그들의 고유한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다. 다음에 거론된 조건으로서 '1898년 재앙'은 충분히 이 조건을 만족시켜준다.<sup>14)</sup> 그 다음의 조건인 '길잡이'에 관해서는 니체가 이 역할을 있다고 보고있으며 그들을 구분시키는 언어의 존재에 관해서는 모더니즘적 언어를 들면서 모데르니스모(modernismo)는 '새로운 것', '현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98세대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사상과 감성을 전달하는 하나의 표현수단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98세대를 모데르니스모로 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모데르니스모는 중남미에서 시작이 되어 그쪽에서 발전이 되었으며 98세대가 갖는 스페인적인 것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현수단으로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98세대 구성원들에게 모데르니스모는 충분히 '98세대 언어'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있다. 마지막으로 전세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특징적 성격에 관해서는 초창기 발표한 98세대 젊은이들의 글을 들면서 그들의 글은 분명히 전세대의 영광이나 관행을 공박하는 글로 가득차있으며 스페인의 병은 분명 이러한 전세대의 잘못으로 비롯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는 페터슨이 '문학세대'로서 제시한 조건에 비추어 볼 때, 98세대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 그룹에 이 이름을 붙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서 그의 글을 맺는다.<sup>15)</sup>

한편 98세대의 구성원의 범위에 관해서도 여러 문학연구가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나 나는 98세대 구성원들을 정하는데 있어서 도널드 쇼가 정한

14) Hans Jeschke는 1898년의 사건과 98세대 구성원들의 결집과의 관계를 자석과 쇠붙이의 관계로 설명한다. 자석은 1898년의 재앙을 의미하고 쇠붙이는 구성원들, 그리고 자력은 98세대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가지 조건들(연령, 교육 등)로 말미암아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수용능력, 또 자장은 이 역사적 사건이 미칠 수 있는 영향권을 의미한다.(Véase, Hans Jeschke, *op.cit.*, pág.64)

15) Véase, Pedro Salinas, *op.cit.*, pág.33.

세가지 조건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첫번째 조건으로서 국가적 이상과 신념을 개조하는데 있어서 참여를 했는가 하는 것을 들고, 두번째 조건으로는 스페인의 문제를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보다 정신적 측면에서 보고있느냐 하는 점, 세번째 조건으로서는 이러한 문제의 겸중수단으로서 문학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들고있다.<sup>16)</sup> 이 세가지 조건에 비추어 볼 때, 베나벤페, 바예-인끌란 등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베나벤페는 초창기에 잠시 좌경노선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작품 어디에서도 스페인 문제의 해석에 있어서 다른 구성원들과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정신적인 관심사들 역시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예-인끌란의 경우는 이보다 더욱 복잡하지만 1895~1908사이에 그의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스페인 문제에 관한 관심의 결여, 그리고 여타의 구성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태도, 즉 고뇌, 內歷史(intrahistoria), 무기력, 스페인주의에 매우 회의적 태도를 견지했다는 점에서 98세대의 명단에 포함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공통적으로 이 범주안에 들어가는 98세대의 구성원들은 우나무노, 아소린, 빠오 바로하, 마에스뚜, 안또니오 마차도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 II. 98세대의 성격규명

### II.1 프랑스 지식인 운동과 스페인

우리는 앞서 당시 스페인이 안고 있었던 문제의 핵심은 온 국민을 이끌 수 있는 지도적 이념의 부재로 인한 신뢰의 상실, 즉 정신적 지주의 결여에서 오는 정신적 위기가 문제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국가체의 위기 속에서 조국을 구할 사명이 지식인 그룹에 떨어지게 된 것은 당연한 역사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스페인 국민들을 둘러싸고 있던 절망감은 곧 정신적 위기감으로 연결되었고 이 정신적 위기를 타개하여 새로운 지도이념을 제시할 계층은 고도의 지적 훈련을 축적하고 있는 지식인 그룹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지식인층은 어느 계층보다도 훈련된 지성<sup>17)</sup>

16) Donald Shaw, *La Generación del 98*, Madrid, Cátedra, 1989, págs.30.

17) 지성의 개념은 동양보다는 비교적 서양의 사상사에서 정리가 잘 되어있는 것 같다. 이 말은 라틴어의 'intelligentia'에 해당된다. 'intelligentia'는 때때로 理性(ratio)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면서도 오히려 더 높은 영적 능력을 의미하

을 소유하고 있는 층으로서 이 지성을 바탕으로 당시의 엄청난 사회변화의 원인을 규명하여 또 장래의 전망 내지는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유일한 층이었다.

이 지식인 그룹은 프랑스의 드레퓌스사건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표면으로 부상했다. 1894년 무고하게 재판에 회부되고 있었던 청년장교 드레퓌스를 구명하기 위해서 에밀 졸라, 아나톨 프랑스 등이 필두가 되어 서명한 '지식인 선언'<sup>18)</sup>이 1898년 1월 14일자 *L'Aurore*紙에 발표되어, 여기에 동조한 일단의 교수들과 문필가들이 'intellectuels' 라 지칭되면서, 특정 성격을 지닌 집단으로 표면화된 것이다. 스페인에서 이러한 특정그룹을 나타내는 프랑스어의 'intellectuels' 와 비슷한 개념을 가진 스페인어의 'intelectuales' 란 단어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이만 폭스의 주장<sup>19)</sup>에 따르면 1900년 이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조사에 의하면 1896년 11월 28일, 바르셀로나의 몽주익감옥에 구금되어있는 페드로 코로미나스 Pedro Corominas의 선처를 당시 수상인 까노바스에게 부탁하는 미겔 데 우나무노의 서신에 이 용어가 나타난다. 문제의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Estimo que el sacrificar a Corominas, que es lo que suele decirse un anarquista platónico, por el natural deseo de servir a una opinión pública, que, tan justamente alarmada como grandemente extraviada, pide caiga algún *intelectual*, llevaría a un acto de escasa justicia y de menos caridad.<sup>20)</sup>

이 용어는 1897년 7월 16일 헤르미날(*Germinal*)에 발표한 마에스뚜의 글 "빌바오 사회주의(El Socialismo bilbaíno)"에서도 나타난다.

기도 했다. 또는 타고난 인식능력을 의미하기도 했다.(황성모, 지성과 근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p.3)

18) 사실 이 <지식인 선언>은 1898년 1월 13일 에밀 졸라의 폭로성 기사가 나가자 다음날 일련의 청원적 선언이 同紙에 게재되었는데 이 선언을 Clemenceau가 "Manifestes des Intellectuels"라 명명한 것이다. 당시 이 <지식인 선언>에 서명한 사람들은 작가와 기자들중에서 Octave Mirbeau, halévy, Anatole France, Emile Zola 등이고 Sorbonne대학 교수중에서는 Brunot, Lanson 등이며 L'Ecole Normale Supérieure 교수중에서는 Lucien Herr, Léon Blum, Charles Péguy 등이 서명했다. Academia에서는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다.

19) Inman Fox, *La Crisis intelectual del 98*, Madrid, Edicusa, 1976, págs.12.

20) citado por Inman Fox, *op.cit.*, págs.13-14.

...Y repróchesele <al socialismo marxista bilbaíno> también el tacto de codos contra *los intelectuales* que aparta de sus filas a multitud de corazones generosas...<sup>21)</sup>

이러한 용어의 사용으로 보아 1900년 이전에, 그리고 프랑스의 드레퓌스 대위 사건으로 인한 <지식인 선언> 이전에 스페인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드레퓌스 사건전이나 혹은 그 무렵에 이미 지식인층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으로 인한 지식인 운동이 스페인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측은 현재 스페인 왕립 언어원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에 나타난 빠르도 바산의 1900년에 행한 지식인에 관한 언급중에서 바로 드레퓌스 사건이 지칭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빠르도 바산은 이 글에서 드레퓌스 사건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녀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Les envidio...sus intelectuales.(Obras Completas, tomoXXI, 1901)<sup>22)</sup>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프랑스에서 한창 드레퓌스사건으로 인해 떠들썩한 그 무렵에<sup>23)</sup> 스페인에서도 바르셀로나의 몽주익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죄수들에 대한 경찰의 무자비한 고문에 항의하는 지식인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움직임은 1896년 6월 7일 꼬르뿌스(Corpus)행렬이 지나가는 바르셀로나의 캄비오스 누에보스거리의 폭탄투척혐의로 구금된 무정부주의자들이 경찰의 잔인한 고문을 받았으며 비정상적인 재판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일단의 젊은 신문기자들이 곧 이러한 경찰의 인권유린에 항의하는 캠페인을

21) *Ibid*, pág.14.

22) *Ibid*, pág.12.

23) 드레퓌스 사건의 절정은 <지식인 선언>이 발표된 1898년 1월 이었지만 d'Esterhazy 소령이 서류를 위조해 유태인인 드레퓌스 대위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워버림으로 당시 프랑스군부의 부정을 호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1897년이었다. 프랑스 군부는 처음에 이 사실을 부인했으나 동년 12월 의회가 적법한 조사활동을 거쳐 이 사실을 확인하여 d'Esterhazy 소령을 파면하였다. 이 사실을 안 에밀 졸라는 1898년 1월 13일 *L'Aurore* 紙에 *J'accuse* 글을 발표하여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여론에 알려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인한 지식인들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1898년 1월 13일 이후이지만 잠정적으로는 d'Esterhazy 소령의 범죄 사실이 드러난 이후부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조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식인들이 압력을 넣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니 말이다.

별이게 된다. 이러한 캠페인에 프랑스의 ‘intellectuels’의 성격과 비슷한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프랑스의 지식인 운동에 연유되어 일어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발생적인 우연한 사건이었는지는 확실히 밝혀진 바 없지만, 드레퓌스 사건으로 야기된 프랑스의 상황에 대처했던 지식인들의 태도와 스페인 왕 정복고의 말기적 상황에 대처하는 당시 스페인 지식인 모습과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지식인의 당시의 상황대처 모습을 통해 몇가지 공통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 즉, 군부권력에 대한 항의적 태도와 카톨릭 승려계급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그것이다. 나아가서 당시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만 폭스가 지식인에 대한 정의를 “제도권 정치, 사회질서에 반대하는 사상가 혹은 문필가 계급”으로 내린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서 비판적, 항의적 성격이 지식인 그룹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식인 그룹은 그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로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강연 등의 수단을 이용했다. 그들은 대중매체의 이러한 기능적 특질을 사용하여 여론을 유도하고 여론을 형성하면서 기성제도권에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주로 글과 관련이 있는 문필가, 신문기자, 교수, 사상가 등이었다는 사실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무기인 말과 글을 통하여 현실타개의 동기를 부여하는 이른바 사제적(司祭的) 기능<sup>24)</sup>을 담당하게 된다.

## II.2. 98세대의 성격

이러한 지식인의 성격은 98세대에 여실히 나타난다. 이만 폭스는 지식인을 뜻하는 “intellectual”이라는 명사가 스페인에 유입된 것도 이 98세대 구성원들에 의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sup>25)</sup> 전술한 바처럼 우나무노가 1896년 11월 28일 당시 바르셀로나의 캄비오스 누에보스 거리의 폭탄투척혐의로 몽주익 감옥에 구금중인 빠드로 꼬로미나스의 선처를 부탁하면서 당시 수상인 까노 바스에게 보낸 서신에 이미 “Intellectual”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든지, 또 1897

24) 국가나 사회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을 때, 지식인은 그 현실을 비판하고 항의함과 더불어 이론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그것만이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실에 참여를 하게되는데 이를 지식인의 사제적 기능이라 한다.(황성모, 前揭書, p.293.)

25) Inman Fox, *op.cit.*, p.13.

년 7월 16일 마에스뚜가 해르미날(*Germinal*)紙에 쓴 글에 이 단어가 다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국가의 행로에 문화적인 영향을 미쳐 간섭하고자 하는 그룹'의 성격에 이 98세대가 가장 잘 들어맞는 첫번째 세대라고 역시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은 98세대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수많은 항의서, 회람, 잡지 등을 보아서도 이러한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글들에서 엿보이는 이 그룹의 주된 의도는 스페인의 정치, 사회 체제를 변혁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98세대가 이 지식인 그룹에 속해있다는 사실은 98세대의 핵심구성원인 우나무노의 글에서 보다 더 잘 나타난다. 그는 1898년 11월 라 에스빠냐 모데르나(*La España Moderna*)紙에 발표한 "La vida es sueño. Reflexiones sobre la regeneración de España"란 글에서 "조국의 재건을 꾀하는 우리들이 바로 지식인들이다."<sup>26)</sup>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우나무노의 선언이 사실이라면 98세대의 성격은 바로 이 지식인 그룹의 성격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뚜렷 데 라라Tuñon de Lara도 이 98세대의 구성원들을 지식인 그룹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이들의 사회적 근원을 밝힐 때 그는 이들이 바로 지적 업무에 종사하는 개화된 소부르조아지 계급출신으로 분류하고 있다.<sup>27)</sup>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으로 당시 지배 과두체제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sup>28)</sup> 그들의 이러한 출신성분은 사회적 상층계급으로서의 이행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자연히 지배층과 갈등 내지는 소원한 관계를 맺게되었고 나아가서는 반대, 비판세력화되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자연 이들은 비록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체제 반대편에 서게 되었고 사상적으로는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로 기울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곧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의 활동근거가 된 층이 프롤레타리아층이 아니라 바로 중간계층이라는 데서 연유된다. 따라서

26) "En rigor, no somos más que los llamados, con más o menos justicia, *intelectuales*, y algunos hombres públicos los que hablamos ahora a cada paso de la regeneración de España", (*Obras Completas.*, III, pág.407, citado por Inman Fox, *op.cit.*, pág.15)

27) Tuñon de Lara, *Medio Siglo de Cultura de España(1885-1936)*, Tercera edición, Madrid, Tecnos, 1984, pág.130.

28) 우나무노는 상인의 아들이었고 마차도와 아소린은 지적업무에 종사하는 가계출신이었다.(마차도의 조부인 안토니오 마차도 누네스는 1868년 혁명 이후 세비야 대학 총장을 지냈고 아소린의 아버지는 변호사였다.) 마에스뚜는 스페인 사람인 부친과 빠리 주재 영국영사 딸인 모친 사이에 태어나 어린 시절에는 유복하게 자랐으나 청소년기에 경제적 형편이 아주 나빠져 여러 직업을 전전해야 했다. 바로하의 부친은 광산 기술자로서 음악과 시에 아주 조예가 깊은 자였다.

이들은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혁명전위대가 되기는 싫어했던 것이다. 이들이 사회의 구체적인 요구보다도 정신적 측면의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이러한 신분적 제약이 그들의 개혁활동에 한계로 작용하였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어쨌든 98세대의 이러한 비판적, 항의적 성격을 이 그룹의 일반적 성격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 항의를 하고 무엇을 비판했단 말인가?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기력한 제도권 정치가들에게 항의하였으며 그들의 조국을 절망상태에 빠뜨린 정치, 사회제도 전반에 관해 비판하였다. 그리고 왕정복고 시대의 부르조아지적 분위기를 비판하였고 과두체제, 까시끼스모(Caciquismo), 행정의 비효율성, 카톨릭 교회의 완고한 교조주의자들을 비판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페인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주려고 애썼으며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문제의 핵심과 이에 따른 처방책을 제시해 주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항의, 비판, 반역적 성격 외에도 98세대를 가름하는 중요한 성격이 바로 이들 개개 구성원들이 표출하고 있는 개인주의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개인적 성향은 이들의 개혁적 의지를 하나의 구심점으로 단일화시키지 못하고 개인적인 것으로만 국한시켜 결국은 철학적, 사상적으로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그들은 국가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와 동일시하여 문제해결에 극도의 추상성을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그들의 개인주의는 어떠한 독단주의에도 본능적으로 반발하는 민주적 성향도 보여주고 있으나 구체적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이고도 무기력한 면모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통합체의 소속의식을 느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1905년 이후에는 공동보조를 취하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나아가는 그룹해체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룹을 논의할 때, 구체적인 현실타개의 방법을 주장하는 재건주의자(regeneracionista)와 구분을 해야한다. 이들은 국력회복을 위해 교육, 상조회, 산업개발 등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주장하지만 98세대 구성원들은 초창기의 모습을 제외하고는 보다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러한 정신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들의 태도가 바로 이 개인주의와 연관이 되어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98세대 구성원의 공통점을 찾을 때 그들이 함께 행동했다는 측면에 촛점을 맞추지 말고 비록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 갔지만 조국의 암울한 현실에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문제’에 비슷한 대응을 하였다는 점에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III. 98세대 국력회복방안

#### III.1. 제 1 기

98세대 지식인 운동은 그들 운동의 성격상 제 1기와 제 2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제 1기는 태동이후 대략 1905년까지의 기간으로 제 2기는 1905년 이후의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제 1기의 활동과 제 2기의 활동의 성격상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제 1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재건주의(*regeneracionismo*)의 성격이 크게 드러난 기간이었고 제 2기는 지나간 역사의 재해석, 스페인의 주체성 회복 등 “내부로!”(*;adentro!*)의 외침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른바 98세대 특유의 문제해결책이 모색된 기간이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제 1기와 2기의 국력회복방안을 비교해봄으로써 98세대 구성원들의 이데올로기적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98세대 지식인의 첫 움직임은 이미 II장에서 언급한 바르셀로나의 깜비오스 누에보스거리 폭탄투척사건으로 검거된 죄수들을 옹호하는 지식인들의 움직임 속에서 볼 수 있다. 페레스 데 라 데에사 Pérez de la Dehesa<sup>29)</sup>에 의하면 이들 항의하는 지식인중에는 미겔 데 우나무노도 있었으며 그는 함께 바르셀로나의 무정부주의 계열 신문인 시엔시아 소시알(*Ciencia Social*)紙에 기자로 있었던 동료 페드로 꼬로미나스의 선처를 수상인 까노바스에 부탁하는 서신을 띄웠다. 한편 아소린도 이 항의대열에 참여하였으며 그는 당시 진보적 색채가 농후한 엘 빠이스(*El País*)紙와 엘 뽀로그레소(*El progreso*)紙에 경찰의 처사를 강렬히 비난하였다. 그리고 마에스뚜 역시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엘 임빠르시알(*El imparcial*)紙에 “몽쥬익의 처참한 공포”란 분노가 가득 찬 글을 실어 정부의 횡포를 비난했다. 이러한 이들의 분노의 함성을 비단 정치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몽쥬익 재판에 대한 지식인들의 항의가 더 져 나오기 얼마 전, 즉 1895년 10월 29일 마드리드에서는 디센따 Dicenta의 “Juan José”공연이 있었는데 우나무노는 이 공연을 “진정한 사회주의의 선언”이라고 1895년 12월 7일자 계급투쟁(*La Lucha de clases*)紙에 공포하였다. 이 우나무노의 선언을 기점으로 몇몇 지식인들이 이 선언에 동조하였는데 1896년 12월 이 작품에 대한 정부와 교회의 탄압이 심해지자 지식인

29) Rafael Pérez de la Dehesa, “Los escritores españoles en el proceso de Montjuich”, en *Actas del tercer Congreso Internacional de Hispanistas*, México, 1970, págs.685-94, citado por Donald Shaw, *op.cit.*, pág.34.

들의 단합 역시 가속화되었다. 아소린은 엘 빠이스紙에 우나무노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실었고 마에스뚜는 몇몇 좌의 성향을 띠는 친구들과 함께 디센파를 옹호하는 파티를 개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들 세사람의 결속이 강화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시 말해서 몽쥬익사건이 정치적 측면에서 이들 98세대 구성원의 핵심멤버들을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면 “환 호세” 공연은 문학적 측면에서 이들을 단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로스 뜨레스(Los Tres)’<sup>30)</sup>라 불리우는 아소린, 바로하, 마에스뚜는 초창기 98세대 지식인 운동의 핵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몽쥬익사건이나 환 호세 공연이 이들을 만나고 결합시키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보다 이들 세사람이 구체적으로 그룹적 성격을 띠면서 활동하게 된 시점은 1901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01년 1월 30일, 갈도스의 “엘렉뜨라(Electra)” 총시연이 있었는데 당시 마드리드 분위기는 어린 여학생을 수도원으로 넣고 자 압력을 행사한 예수회신부의 처사에 분노하는 사람들의 무리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의회주의자인 실벨라와 반승려주의자(anticlerical)인 까날레하스의 대립으로 한창 뒤숭숭하였다. 이 때 마에스뚜는 박수부대를 동원해 갈도스를 도왔다. 막이 오르자 마에스뚜가 동원한 박수부대는 “물러가라! 예수회 신부들이여!”를 외치기 시작했고 이어 아소린과 바로하를 포함한 관중들은 이를 박수부대가 뿐어내는 반승려주의(Anticlericalismo)적 분위기에 끌려 들어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제 3막이 끝난 후 이러한 격앙된 분위기는 소요로 확산되어 경찰의 개입이 있고서야 가라앉을 수 있었다. 다음날 이들 세 사람은 이 사건의 파문을 재빨리 글로 옮겨 적었다. 바로하는 1월 31일 엘 빠이스紙에 열광적인 글을 써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부각시켰고 마에스뚜는 훨씬 강력한 어조로 이날 밤이 역사적인 밤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소린은 이날 밤의 공연 작품인 “엘렉뜨라(Electra)”가 “현대적으로 소생된 스페인의 상징”라고 하면서 이 작품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다.<sup>31)</sup>

이 사건이 이들 세사람의 결속감 형성에 미친 영향은 대단했다. 이 사건 후, 이들 세사람은 갈도스의 작품이름과 동명인 잡지 “엘렉뜨라”<sup>32)</sup>에 공동으

30) 이들 즉 아소린, 바로하, 마에스뚜는 훗날 ‘Los Tres’란 필명으로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종종 ‘Los Tres’로 지칭된다. 이들이 98세대의 핵을 이루고 있음은 앞서 말한 바있다.

31) Donald Shaw, *op.cit.*, pág.40.

32) 잡지 “엘렉뜨라”는 1901년 3월 16일 창간되었다. 이 잡지의 주요 멤버로는 마에스뚜, 바로하, 바예-인플란, 아소린, 우나무노, 안포니오 마차도, 나렌스, 까스뜨로비도 등이며 잡지의 이름이 암시하듯이 갈도스 작품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이 잡

로 참여하게되며 압력단체로서의 그룹의식을 공고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후 이 잡지가 몇 개월 후에 좌초하게 되자 바로하와 아소린은 여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들 스스로 잡지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이의 이유로써 아소린은 마드리드지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다. “우리의 그룹은 스페인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더이상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 수만은 없다.”<sup>33)</sup> 그래서 그는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Había que intervenir.)”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잡지 <<후벤품(Juventud)>><sup>34)</sup>이 탄생된 것이다. 이 잡지는 직업기자인 까를로스 리오의 도움을 얻어 바로하와 아소린이 편집, 출판하였다. 그리고 우나무노, 코스따, 히네르, 까할, 도라도 몬페로, 베스페이로, 알파미라 등이 필진으로 참여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98세대의 핵인 ‘로스 뜨레스’의 이념적, 정치적, 사회적 주장들을 많이 담았다. 따라서 이 잡지가 주장하는 바를 살펴본다면 당시 98세대 젊은이들이 국력회복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잡지의 논조는 유럽적이고 과학적이었다. 예를 들어 1901년 11월 10일 발행된 제 5호를 보면, 매우 중요한 집단선언적 글을 실고 있는데 이 글을 살펴보면 먼저 스페인의 고식적이고도 구태의연한 여러 모습들과 스페인의 후진성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한 다음 이의 해결책으로서 ‘현존하는 것의 기반위에서’, ‘유럽적인 것’에 더 많은 개방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학 연구소 (Instituto de Sociología), 대학 등의 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전문가에 의해 사전에 스페인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글을 배경으로 해서 한달 후, 98세대 젊은이들의 주장을 극명히 전달해주는 저 유명한 ‘로스 뜨레스의 선언(Manifiesto de Los Tres)’<sup>35)</sup>이 <<후벤품(Juventud)>>에 실리게 된다. 그들은 이 선언에서 어떠한 종교적, 정치적 이념도 국가부흥을 꾀하는 젊은 인텔리겐차들에게 구심점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유일한 출발점은 일반과학(ciencia en general)지식을 사회의 모든 상처(todas las llagas sociales)에 적용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병리를 구체적으로 농촌의 빈곤,

지와 함께 갈도스는 일약 98세대의 정신적 지도자로 부상하게 된다. 이 잡지의 논조는 무정부주의적이며 반승려주의적 경향이 강했다.

33) Donald Shaw, *op.cit.*, pág.41.

34) 이잡지는 1901년 10월 1일에 창간되어 1902년 3월 27일 폐간되었다. 총 12호까지 나왔다.

35) Véase, Luis Granjel, *Panorama de la Generación del 98*, Madrid, 1959, especialmente capítulos VI, “Doctrinas políticas”, y IX “Intervencionismo político”.

기아, 알콜중독, 매음 등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무교육, 농촌 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또는 그 일을 전담할 금융기관 설립, 이혼의 합법화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이들의 주장으로 보아 이들이 스페인 문제해결책으로 제시한 국력회복방안이 얼마나 부흥주의자들의 주장과 흡사한지 금방 알 아차릴 수 있다. 이들이 사상적으로 좌경적 색채를 띠고 있으므로 인해 부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엘리트주의와는 약간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밖에도 그룹성원으로서의 집단적인 행동은 1900년 12월에 행한 스페인의 유서깊은 도시 빨레도의 방문<sup>36)</sup>, 1901년 2월 13일의 낭만주의 작가 라라도의 참배<sup>37)</sup>, 그리고 1902년 3월 25일 바로하의 소설『완성의 길』(Camino de Perfección)의 출판기념파티<sup>38)</sup>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집단행동을 통하여 이 그룹이 지향하는 사회비판과 참여를 통한 사회개혁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다.

98세대 젊은이들의 마지막 공개적인 활동은 1904년 당시 그들이 기성세대의 상징적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던 에체가라이에게 노벨상을 수여하고 이의 축하를 위해 잡지사 <<헨데 비에하(Gente Vieja)>>가 거국적인 기념행사를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해 1905년 3월 아소린, 우나무노, 바로하, 안토니오 마차도, 마에스뚜 등 98세대 젊은이들이 <<에스빠냐>>紙에 집단항의를 한 사건이다.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그들은 기성세대, 기성체제에 대한 그들의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초창기 98세대 구성원들의 사회참여의 성격을 추적해보면 다음과

36) 이 도시 방문의 의미는 당시 암울한 조국의 현실 앞에서 과거의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잘 보존하고 있는 고도 빨레도를 방문함으로써 조국 스페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37) 라라는 “스페인을 부흥시키자”라는 구호를 처음으로 유행시킨 낭만주의 작가로서 이 작가의 묘소를 98세대 젊은이들이 방문했다는 것은 98세대의 성격을 가름하는 낭만주의와 98세대의 만남이라는 중요한 의미와 더불어 현화 다음에 행한 아소린의 연설, “este espíritu castellano, errabundo, tormentoso, desasosegado, trágico, amargado por el perpetuo *no saber*”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어떠한 compromiso social보다 preocupación metafísica를 우위에 놓는, 단순한 regeneracionismo와 구분되는 98세대의 고유한 성격이 표출되고 있다는 데 크나큰 의미가 있다.

38) 이 banquete는 마그리드의 유서깊은 곳인 Parador de Barcelona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곳에서 행한 연설을 종합해볼 때, 이 그룹이 지향하는 바를 쉽게 알 수 있다. 이 곳에서 이들 젊은이들은 그들을 스스로 juventud moderna로 지칭했으며 그들 세대가 지향해야 할 이상의 견여로 말미암은 슬픈 영향을 받은 세대라고 주장했다.

“Hija de una generación escéptica en el fondo, declamadora en la forma, la juventud moderna, durante su infancia y su adolescencia, el triste influjo que sobre las almas ejerce la falta de ideales.”, citado por Hans Jeschke, *op.cit.*, pág.79.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로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으로 국가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훗날 가장 급격한 방향전환을 한 우나무노도 이 때까지의 작품성향을 보면 사회주의적 견지에서 경제적, 물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노력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로스 뜨레스가 주동이 된 ‘선언(Manifesto)’도 이러한 실질적 해결책을 주장하고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두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비교적 좌경쪽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시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사회주의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호기심 또는 흥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98세대 젊은이들의 사회참여는 실패했다. 그 이유는 당시 그들이 주장했던 스페인 문제의 해결책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그들에겐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정치가나 사회개혁가가 아니라 부르조아지 출신의 문필가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직력과 집단적 결속력이 있어야 하는데 문필가 특유의 개인주의가 이것을 막았던 것이다. 또 그들이 접근했던 좌경이데올로기도 이를 실현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과 직업이 좌익혁명가로서의 변신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이러한 현실참여의 실패는 스페인 문제해결의 방향전환을 가져오게 되었고 비로소 98세대 특유의 국력회복방안이 모색된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장에서 보게될 것이다.

### III.2. 제 2 기

98세대 지식인들은 그들의 현실참여가 참담한 실패로 끝나자 대략 1905년을 축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이제 그들의 눈길은 가변적인 현실의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점에 있지 않고 눈을 돌려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나선다. 그래서 선부른 유럽주의나 실용적 성격의 개혁을 포기하고 어쩌면 그들에게 알맞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그것은 그들이 스페인 문제의 핵심이 보다 정신적인 영역 즉 국민적 구심체의 결여, 이에 따른 신뢰의 상실에 있다고 보는 그들의 시각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스페인 국민 모두가 좌표로 삼을 수 있는 것, 진정한 스페인 국민의 혼의 추구에 전력투구하게 된다. 이제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전통을 사랑합시다, 그것의 정수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미래를 간직하고 있는 수수께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sup>39)</sup>라는 바예-인끌란의 외침처럼 과거를 되돌아보고, 무구한 역사를 간직해온 스페인의 풍경을 재해석하면서, 영원한 스페인 국민

의 정수를 찾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들의 방향선회의 조짐은 이미 1902년 로스 뜨레스가 우나무노에게 <<후벤텐(Juventud)>>의 ‘선언’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을 때 이에 대한 우나무노의 대답에서 엿보이고 있다. 그는 이들 요청에 대한 답장에서, 나는 스페인이 일본화(japonización)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스페인 국민의 정신을 바꾸는 일이라고 주장했다.<sup>40)</sup> 문제해결의 방법이 물질적인 영역에서 정신적 영역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은 문제해결의 측면이 추상적, 철학적, 문학적 측면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98세대 문학이 단순한 선전문학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고유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문학으로 스페인 문학사에서 깊이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그들이 정치가가 아니라 문필가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98세대 지식인들의 시각변화는 먼저 그들의 조국 스페인이 안고 있는 풍경의 재해석부터 시작된다. 그들이 추구했던 스페인정신의 정수는 혹시 그들과 그들의 조상을 놓고 그들의 심리적인 성격을 형성시켜왔던 조국의 대지 속에 있지 않을까? 그들은 이 대지 속에 그리고 그들이 딛고 서있는 이 땅이 형성하고 있는 스페인 특유의 풍경속에 그들 존재의 구심점 즉 영원한 스페인의 혼이 있을 것으로 믿었다. 시간이 흘러가고 사람도 없어져 가지만 스페인의 산천은 여전히 의구했던 것이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속에서도 변치 않는 그 무엇은 바로 이 풍경속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 아닌가. 이 풍경속에 그들의 자연이 존재하고 이 자연속에서 형성된 고유한 품성이 것들여 있으며 이 품성은 사람들을 만들어 내었다. 그들이 재해석하기를 원했던 풍경은 이 세가지 요소를 원천적으로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시선은 스페인의 광대한 대지의 어느 부분에 특별히 고착되었을까? 말할 것도 없이 스페인의 역사를 주도했던, 그리고 스페인 지형의 가장 중심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또한 그들의 역사, 문학, 철학의 용기(容器)였던 까스떼야노(castellano)의 본고장 까스띠야였다. 98세대 지식인들은 이 까스띠야를 재발견하기를 원했다. 메마르고, 거칠고, 바람부는, 척박한, 그래서 그 어느 지역보다 궁핍이 더 휘몰아치고 있는 까스띠야 벌판속에서 그들은 현재 스페인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이 파상적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스페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보이는 까스띠야 벌판 너머에 존재할 다른 까스띠야 들판의 모습을 그렸다.<sup>41)</sup> 곤살로 베르세

39) Citado por Hans Jeschke, *op.cit.*, pág.101.

40) Citado por Donald Shaw, *op.cit.*, págs.43-44.

41) Véase los siguientes versos de Antonio Machado: “Oh tierra ingrata y fuerte,

오, 아르씨쁘레스떼 데 이따, 호르헤 만리께, 마르께스 데 산띠야나, 세르반떼스, 께베도, 공고라가 활동했던 까스띠야는 지금의 까스띠야가 아니었다. 그들이 까스띠야의 풍경에 그토록 집착한 것은 진정한 애국심의 발로였다. 조국을 사랑했기에 조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자 했다. 그리고 조국의 풍경, 까스띠야의 풍경이 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역사 너머의 영원한 역사, 즉 **內歷史**(intrahistoria)이다. 빼드로 라인 엔뜨랄고는 이 풍경과 **內歷史**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까리온(Carrión) 강이 천천히 초원을 적셔 흐르는 이 곳. 유구한 역사와, 장엄한 서사시와 그리고 로만세(romace)의 전설이 이 호르헤 만리께 강의 잠잠한 수면위를 떠다니고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난사(Nansa) 강이 바위산의 절벽을 소리내며 내려가고 있는 그 곳에서 노래소리는 더욱 깊고 인간적이다. 이 곳에 비해서 저 곳은 인간적인 냄새가 덜 난다. 바로 햇빛에 검게 그을린 이 농부를 통해 역사가 지나갔다.<sup>42)</sup>

바로하, 우나무노, 아소린, 마차도 등 98세대 지식인들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진한 풍경주의(paisajismo)는 바로 이 조국의 풍경을 통해 스페인 국민이 영원히 잡아야 할 스페인 정신의 본체를 찾고자 하는 그들의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까스띠야 지방의 풍경을 관조하면서, 그리고 작품속에서 찾고자 했던 스페인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뜨거운 애국심을 표출시켰다.

두번째로 그들의 시선이 멈춘 곳은 역사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정한 스페인의 문제점이 그들이 영원히 붙들어야 할 스페인 혼의 결여와 이에서 비롯되는 신뢰의 상실에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표면적인 역사의 모습이 1898년이라는 시점으로 완전히 허상으로 드러났다면 이제 진정한 역사의 실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역사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했다. 우선 지금까지 그들에게 보여진, 서술되어진 역사는 큰 사건중심의, 위대한 인물중심의 역사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과연 이러한 역사의 모습이 진정한 역사의 모습인가 하면서 이에 대한 회의를 표명했다. 공허한 스페인의 영광만 부르짖던 이

---

tierra mía! / ¡Castilla, tus decrépitas ciudades! / ¡La agria melancolía que puebla tus sombrías soledades! / ¡Castilla varonil, adusta tierra! / Castilla del desdén contra la suerte. / Castilla del dolor y de la guerra. / tierra inmortal. Castilla de la muerte!"

42) 이 **內歷史** 개념은 우나무노가 그의 글 “국수주의에 관해서”(1895)에서 처음으로 제창한 역사개념이다. 그는 이 글에서 이 개념 외에도 98세대 문제제기의 핵을 이루는 몇가지 테마 즉, 까스띠야의 재평가, 그리고 국수주의와 유럽화 문제를 다루었다.

러한 역사의 모습은 ‘1898년의 재앙’을 계기로 해서 그 거짓된 모습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스페인의 정확한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을 기만해왔던 이러한 모습의 역사서술을 포기하고 역사를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나무노 등 98세대 지식인들이 주장했던(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內歷史’ 개념이다. 이 개념은 우나무노의 설명처럼 “영원한 바다”<sup>43)</sup>와 같은 개념이다. 즉 표면에서는 파도가 몰아치고 있지만 깊은 바다의 심연에는 단절이 없는 영원한 바다의 진실된 모습이 있다는 것이다. 이 영원한 바다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내면 깊숙이 자리잡은 무의식 세계로 이해될 수 있고 파도는 의식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개의 생각을 의미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内歷史의 의미는 역사의 무의식적인 부분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역사의 무의식적인 부분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역사의 진실이라고 이 개념의 주창자인 우나무노는 말하고 있다. 의식세계에서 개개의 생각은 단절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무의식 세계의 심연은 단절됨 없이 연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정신세계의 우주는 의식을 형성하고 이 의식의 심연으로부터 연속의 속삭임이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 개성의 깊은 느낌도 이 의식의 심연에서 나온다. 심연은 살아있는 침묵세계요 의식의 가장 깊은 부분이다.”<sup>44)</sup> 따라서 지금까지 인지하고 배워왔던 큰 사건과 위대한 인물 중심의 역사는 표면적 역사의 단절된 집합이고 역사의 진실된 실체가 아니다. 마치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스페인의 역사적 정수를 보여주지 않으며 그것을 内歷史에서 찾아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 内歷史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가? 바로 스페인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평범한 것, 하찮은 것, 눈에 띄지 않는 것,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속에 역사의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스페인 역사를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표면적 역사가들이 스페인의 영광의 근거로 자랑했던 아메리카대륙 발견이나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황금세기 특히 바로크시대는 재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제국주의라는 팽창주의는 스페인 민족을 사상도 없고, 문학도 없는, 미적 친밀성에 문외한인 패권주의자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복, 패권 중심의 역사는 더 이상 스페인의 진실한 모습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스페인의

43) Pedro Laín Entralgo, *op.cit.*, págs.35.

44) Miguel de Unamuno, *En Torno al Casticismo*, Madrid, Ediciones Alcalá, 1971, págs.150: “El Universo todo es un tejido de hechos en el mar de lo indistinto e indeterminado, mar etéreo y eterno e infinito, un mar que refleja en el cielo inmenso de nuestra mente, cuyo fondo es la ignorancia.”

內歷史는 이제 이전의 ‘즉흥적인, 유쾌하고, 친밀한 시대’, 즉 초창기 시대(*época primitiva*)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초창기 역사, 초창기 문학에 역사적 진실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나무노를 비롯한 98세대 지식인들이 베르세오, 아르씨쁘레스떼 데 이파, 마르께스 데 산띠야나 등 중 세작가들을 그토록 선호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바예-인끌란 역시 우나무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스페인 국민이 외적 행동을 하기 전의 시대는 ‘청명하고 즐거운 시대’였으며 제국주의적 팽창주의가 지배한 시대는 교만하고, 허황된, 자기 본질을 잊어버린 시대로서 17세기가 바로 이 시대라고 주장했다.<sup>45)</sup>

스페인의 풍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스페인의 진수를 찾고자 했던 98세대 지식인들은 이제 그들이 새롭게 발견한 것을 기반으로 스페인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즉 앞서 말한 가장 본질적이고, 친밀한 진실된 모습의 조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사여부에 관계없이 ‘꿈’을 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꿈’을 통해서만 현실 세계를 탈피해 가장 이상적이고 본질적인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98세대 지식인들은 이제 더 이상 현실적인 개혁주의자(reformador)가 아니다. 그들은 꿈을 꾸는 자들인 것이다. 이 꿈은 현실 세계의 모든 요소들을 마술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정수, 진실, 본질의 세계로 변형해 버린다.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희망을 의미한다. 이 꿈은 현실의 벽에 부딪칠 때는 실패의 연속이지만 꿈 속에서 만큼은 기쁨이요, 만족이자, 소망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특히 우나무노) 스페인 민족이 나아가야 할 마지막 대안으로서 돈끼호테를 제안한다. 광기 속에 살고 있는 돈끼호테, 꿈 속에 살고 있는 돈끼호테, 광기와 꿈을 먹고 사는 돈끼호테가 마지막 대안인 것이다. 광기(꿈) 속에서 오직 풍차만을 향하여 저돌적으로 전진하는 돈끼호테의 합성만이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선사해 주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우나무노는 그의 저서 『생의 비극적 감성』(*Del Sentimiento Trágico de la Vida*)의 마지막 장에서 돈끼호테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간파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돈끼호테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광야의 외침이다. 사람들은 듣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광야는 듣는다. 이 소리는 언젠가는 삼림을 울릴 것이고 이 외로운 외침은 광야의 씨가 되어서 언젠가는 거대한 삼나무로 클 것이다. 그리고는 생명과 죽음의 구주를 맞는 호산나의 영원한 합성을 땅끝까지 질러댈 것이다.”<sup>46)</sup>

45) *Ibid.*, págs.148.

46) Pedro Laín Entralgo, *op.cit.*, págs.126.

바로 이 돈끼호테의 행동을 통하여 잃어버린 스페인의 본질, 정수를 회복하고 꿈을 꿈으로써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98세대 지식인들의 마지막 절규였다. 즉 그들은 이제 문학을 대책으로 제안한 것이다.

## 結 言

98세대 지식인 운동의 물결이 지나간 후에, 이들은 후세대의 지식인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그들의 족적을 남겨놓게 된다. 실제로 98세대 지식인들이 지향한 바들, 즉 그들의 개혁적인 태도, 애국심, 크라우시스모(Krausismo)등은 1920-30년 지식인들의 이데올로기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32년에 출간된 『헤니오 데 에스빠냐』(*Genio de España*)에서 이 책의 저자 히메네스 까바예로는 98세대 지식인들의 계승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이들을 '98세대의 아들, 손자들 (hijos, nietos de los noventa y ochistas)'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은 98세대 지식인들이 그려했던 것처럼 선배들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았지만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관심사들, 특히 조국 스페인에 대한 남다른 걱정과 관심 등은 그대로 이어 받았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호세 오르떼가 이 가셀이다. 그는 비록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모양을 띠고 있었지만 98세대 지식인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문제를 사회, 경제 측면에서보다 철학, 이론적 측면에서 풀려고 애썼던 자로 조국부흥을 기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소수의 지적 엘리트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엘리트주의는 훗날 프랑코주의(franquismo)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게된다.

스페인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한 98세대 지식인들은 결과적으로 프랑코주의자를 포함한 극우 지식인들에게 스페인 중심적 사고방식,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조국 스페인에 대한 우월의식을 심어놓게 된다. 어쩌면 이러한 결과는 98세대 지식인들이 문제해결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정신적인 방향으로 행로를 바꾸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스페인 중심의 애국주의는 공산주의라는 범세계적 성격의 이데올로기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호세 안또니오와 뽀리모 데 리베라 등을 비롯한 극우인사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훗날에 가서 98세대 지식인들의 주장은 독일의 이상주의를 모방한 것으로 스페인의 진정한 실체를 오도했다고 하여 극우인사들에게서 조차도 비난을 받는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 나름대로 이들의 주장이 너무나도 추상

적이고 실용성이 없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스페인 인민의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했다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98세대 지식인 운동을 긍정적으로 보았든 부정적으로 보았든 이들의 활동과 주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국난회복대책이 비록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개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사유범위로 너무 ‘개인화’ 시켜버려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또 문화적 전통에 있어서 너무 종족적, 역사적 특색을 강조한 나머지 약간 갑정적인 문화 결정론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98세대 지식인 운동의 진정한 평가는 이러한 점보다는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느 누구도 국민들에게 정확한 조국의 참모습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러한 조국의 모습에 진정한 아픔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몸부림을 친 지식인 그룹이라는 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8세대 지식인들의 개혁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스페인 문제의 근본적 실상을 정확히 깨뚫어 보고 이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애썼던 이들의 노력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세기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스페인을 당시의 비참한 상황으로 몰고 갔던 구세대의 잘못된 관행, 가치관과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가치관, 현대적 가치관을 마련하려고 힘썼으며, 자연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결국 그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인 문학이었다. 그들은 이것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을 전달하였고 그들의 천부적인 문학적 재능이 발휘된 문학작품은 곧 ‘98세대 문학’이라는 스페인 문학에 있어 ‘銀時代’(Edad de Plata)의 문을 여는, 독특하고도 뛰어난 문학형태를 이루게 된다.

그러면 98세대 지식인들은 스페인 현대화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의 문을 열고 기반을 조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전세대와의 단절의 노력, 재건주의(regeneracionismo)의 영향을 받은 합리적, 과학적 정신 그리고 제 2기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개인주의적 성향, 또 이 그룹부터 시작되어 20세기 현대문학의 주된 흐름을 이루는 문제의 실존적, 철학적, 정신적 접근 등은 이 그룹이 비록 불완전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현대의 문을 분명히 열고 기초를 제공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지금 98세대 지식인들이 구세대를 향하여 항의의 외침을 퍼부었던 시점보다 꼭 100년 후의 시점에 살고 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서있는 우리들. 과연 이들이 부르짖었던 자기검증과 진보의 합성을 지금 외치고 있는가.

### 참 고 문 현

- Azorín, *Antonio Azorín*, Barcelona, Labor, 1970. de Cultura Económica, 1980.
- Fernández Almagro, Melchor, *En torno al 98*, Madrid, Jordan, 1948.
- Gabriele, J.P., *Divergencias y Unidad: Perspectivas sobre la Generación del 98 y Antonio Machado*, Madrid, Orígenes, 1990.
- Granjel, Luis Sánchez, *La Generación literaria del 98*, Salamanca, Anaya, 1973.
- Inman Fox, E., *La Crisis Intelectual del 98*, Madrid, Edicusa, 1976.
- Jeschke, Hans, *La Generación de 1898*, segunda edición, Madrid, Editora Nacional, 1954.
- Laín Entralgo, Pedro, *La generación del noventa y ocho*, novena edición, Madrid, Espasa-Calpe, 1979.
- Lázaro, Fernando - Tusón, Vicente, *Literatura Española*, Madrid, Anaya, 1983.
- López-Morillas, J., *El Krausismo Español*, segunda edición, Madrid, Fondo, 1980.
- Machado, Antonio, *Poesías Completas*, décima edición, Madrid, Espasa-Calpe, 1984.
- Mainer, José-Carlos, *La Edad de Plata (1902-1939)*, Madrid, Cátedra, 1983.
- Pérez-Bustamante, C., *Compendio de Historia de España*, undécima edición, Madrid, Atlas, 1967.
- Rico, Francisco, *Historia y Crítica de la Literatura Española*, VI, Barcelona, Crítica, 1980.
- Roldán, J.Manuel, *Historia de España*, segunda edición, Madrid, Edi-6, 1986.
- Salinas, Pedro, *Literatura Española Siglo XX*, Madrid, Alianza, 1989.
- Shaw, Donald, *La Generación del 98*, Madrid, Cátedra, 1989.
- Tuñon de Lara, Manuel, *Medio Siglo de Cultura Española (1885-1936)*, edición, Madrid, Editorial Tecnos, 1984.
- Unamuno, Miguel de, *En Torno al Casticismo*, Madrid, Alcalá, 1971. *Del Sentimiento Trágico de la Vida en los Hombres y en los Pueblos*, Madrid, Espasa-Calpe, 1976.
- 황성모, 『지성과 근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 The generation of 98 and movement of the intellectuals

Choi, Nak-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iterature motive of the Generation of 1898(G. 98), which influenced to the modern Spanish literature as the main force of so-called "Edad de plata", and, as a result, to make good understanding of the modern Spanish literature. At the same time, because they belong to the so-called "The Intellectuals", which had formed new atmosphere in politics, philosophy, and literature in Europe, we can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 98's literature movement properly when we study their literature from the viewpoint of intellectual movement: one way of the reconstruction of the national energy in Spain, in which people were in the extreme despair because of the defeat in the Spain-U.S.A. War in 1898.

When we see that the above mentioned intellectuals is called "the Generation of 1898", imitating "the Disaster of 1898", we can't deny the historic character that "the G. 98" possesses. In other word, they were the intellectuals who reacted first at the crisis of their fatherland caused by a historic incident named "the Disaster of 1898", and they were patriotic citizens who intented to rescue their nation with their intellectual talant, before being a man of letters. In fact, the literature is one of the patriotic movements to rescue their fatherland. And because they worked at the threshhold of 20th century, as intellectuals who had modern and advanced philosophy, they could not disregard their roles in the process of Spain modernization. Actually, it can be said that they are the people who formed the foundation of modern Spain. They made their efforts to disconnect the relationship with the previous generation, and had the rational, scientific characteristics, influenced by the idea of "regeneracionismo", and the individualistic tendency. Thus, there is no doubt that they laid the

foundation of the existential, philosophical, and mental approach in the 20th century literature. In sum, it can be said that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G. 98 are the two things: their literature movement as a way of the reconstruction of the national energy and their contribution to lay the foundation of modern Spain.